

전남 외국인 노동자 한국 적응 꼼꼼히 챙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기후·문화 다른 노동자에 패딩·포크 제공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장·나라별 식단표 표기 안내 서비스도

코리안드림을 안고 지난해 11월 고용허가제로 태국에서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A(32)씨는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밥을 먹다가 동료 직원과 크게 다투었다. 젓가락질에 서툴러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 자국에서처럼 손으로 밥을 먹자 한국동료가 "비위생적"이라고 면박을 줬기 때문이다. A씨는 "한국동료들과 같이 밥을 빨리 먹고 쉬는 시간을 함께하며 친해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면박을 겪어 거리감이 생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계절노동자로 해남의 한 배추농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B(26)씨는 지난해 12월 난생 처음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다. 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인 경량패딩을 꺼내입었지만 한겨울 고랭지의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푼이라도 더 벌여 고향집에 돈을 보내기 위해 한국에 온 B씨는 "8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최소 10만원이 넘는 패딩을 구입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며 "겨우 지역 인권단체에서 두꺼운 겨울 옷을 지원해 줘 버틸 수 있었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한국에서 단기간 머물며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문화와 기후가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이주 노동자는 2만 5000명에 달하고 이중 계절 노동자는 4000명을 웃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뿐 아니라 젓가락질 등 문화가 달라 내국인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동남아 출신의 단기 계절노동자들은 전남 농어촌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류 구입을 못하고 있다. 이에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이들과 같이 문화·기후가 달라 적응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전남 각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전남 지역 이주 노동자들에게 포크와 외투를 제공한다. 먼저 이달부터 11월까지 음식문화 존중과 개선

을 위한 '이주노동자에 식사를 배려 합시다' 캠페인과 함께 각 고용 사업장 식당에 포크 2500개를 제공한다. 문화적 차이로 젓가락질이 힘든 외국인노동자에게 포크를 제공해 식사문화에 적응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식단표를 안내하고 식당 원재료도 해당 언어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는 돼지고기 섭취가 금기시 돼 있고 한두교를 믿는 국가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위해 해당 기업 사업주와 영양사(조리사) 간담회 등을 열고 시행에 앞서 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또 기업 또는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고 혹은 여분의 작업복을 나눠 이주 노동자의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의 의미에 크게 공감한 기자자동차 노동조합과 삼호중공업 노·사는 작업복 제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은 작업복은 여수산단과 대불산단 내 작업복세탁소의 협조를 받아 깨끗이 세탁해 외국인노동자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 수거를 위해 센터와 협의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지역 주요 기업 또는 관공서, 아파트 곳곳에 '작업복(현우) 수거 현수막'을 붙이고 본격 수거에 나선다. 수거된 작업복은 11월 전남노사민정협의회와 센터 주최로 나눔 행사를 열고 배분할 예정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식사 예절, 문화 등이 다르다보니 갈등이 생기고 한국에서 살기 어렵게 만든다"며 "단순 포크 하나, 외투 한벌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돼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수족관 거닐며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여수 아쿠아플라넷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족관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학폭 가해자, 교사 꿈 꾸지도 마라

광주교대 등 지원 제한

광주교대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광주교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

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광주교대는 수시전형에서 학폭 부적격 처리방침을 도입했고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광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광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5호는 30~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 동구 '미로 청소년 버스킹' 참가자 모집

광주시 동구가 '미로 청소년 버스킹'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광주시 동구는 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미로센터 미로가든에서 '미로 청소년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마다 미로센터에서 댄스와 보컬을 통합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기간 5·18민주광장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개인 또는 팀)은 5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로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쏜 60대 입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을 길고양이 2마리에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을 맞은 고양이 중 한마리는 현장에서 죽었

고, 나머지 한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닭이 낳은 병아리를 물어가는 등 길고양이 피해가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기총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허가없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세계로 향하는 교육” 도교육청 첫 추정 2640억 증액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늘봄학교·디지털 기반 구축 등 김대중 교육감 “전남형 늘봄학교 안착 등에 집중 투자”

전남도교육청이 2600억원의 추가예산안을 편성해 역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64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원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16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61억원, 자체수입 38억원, 전년도 이월금 676억원이다.

과제별로는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8억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486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120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303억원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93억원, 행정기관 운영 및 인건비로 14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59억원), 전남형 늘봄학교 안착·방과후학교 운영

(334억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연수·환경 구축(207억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4조9170억원 대비 5.4% 늘어난 5조1810억원이 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을 통해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는 29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와 전남형 늘봄학교 안착 등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